몽골 칼라차크라 관정 법회에 세계불자 운집

8월 9~22일, 총본산 간단사원서
자도 린뽀체 집전에 대중 수만명
세계평화 증진…개인 수행 입문
차기지도자 제쭌 담빠 후툭투 상석

박영빈 객원기자


칼라차크라 관정법회를 준비하는 자도린뽀체. 사진출처=자도 린뽀체 공식 페이스북

몽골불교의 총본산인 간단사원에서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세계평화를 위한 칼라차크라 관정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티베트의 고승 자도 린뽀체가 집전하는 이 관정법회를 위해 몽골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부대중들이 운집했다.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몽골의 현지언론들은 이 법회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칼라차크라 관정법회는 세계평화를 증진하고 수행자 개개인이 칼라차크라 수행에 입문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하는 법회다. 이 관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법형제로서 인연을 맺게 되고 서로의 평화와 깨달음을 위한 기원을 올리기에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 인연이 있다고 한다. 또 티베트 불교권에서는 이 법회에 참석하면 다음생에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을 지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어 많은 사부대중이 운집한다. 그렇기에 티베트 불교에서도 칼라차크라 관정을 주관할 수 있는 고승은 많지 않으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역시 인도를 비롯해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칼라차크라 관정법회를 개최할 때마다 최소 수 만명의 불자들이 운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몽골에서 봉행되는 칼라차크라 관정법회는 달라이라마의 개인 사찰인 남갤사원의 전 방장, 자도 린뽀체가 주관한다. 자도 린뽀체는 특히 칼라차크라 수행의 전문가로 이름 높으며 이미 2019년 몽골에서 해당 관정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자도 린뽀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몽골과 칼라차크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몽골불교 최고의 스승이었던 자나바자르 스승 때부터 이미 몽골은 칼라차크라의 특별한 성지로 여겨졌고, 티베트는 물론 멀리 인도의 불자들도 칼라차크라의 가르침을 위해 몽골을 방문했다"며 이번 법회의 연기를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칼라차크라 법회에 새롭게 몽골에 등장한 불교 지도자인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가 법회의 상석에 앉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9세인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는 몽골불교의 차기 최고지도자가 될 환생자로, 이번 법회를 주관하는 자도 린뽀체가 그의 개인교사로 경전과 불교의례를 가르치고 있다.

법회를 개최하는 간단사원 측은 "이번 관정법회는 간단사원의 요청으로 봉행되며 의궤에 맞추어 장장 2주간 봉행된다. 관정법회 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대중들을 위하여 일반 법문도 함께 진행된다. 모든 법문과 관정은 자도 린뽀체가 주관하신다"고 밝혔다. 몽골불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이번 법회는 점차 참석을 희망하는 대중들이 늘어나면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동시통역이 결정됐다.

지난 9일 현지시간 오전 5시부터 시작된 법회는 16일까지는 칼라차크라 모래만달라의 조성과 일반 법문들이 진행됐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 관정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간단사원 측은 "예상보다 많은 사부대중들이 운집하면서 법회의 규모가 커지게 됐다. 참석을 원하는 이는 반드시 현장, 혹은 사전등록을 하고 출입증을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걸, 두 딸과 티베트 포탈라궁 방문

티베트 불교 성지 '라싸' 순례


사진출처=이연걸SNS

한때 건강 위독설이 돌았던 중화권 액션배우 이연걸(61)이 두 딸과 함께 티베트 불교 성지를 순례 중인 모습을 공개해 화제다.

이연걸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 전 딸들과 라싸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라며 딸들과 함께 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연걸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두 딸과 함께 라싸에 방문해 스님들과 환담을 나눴다. 라싸는 티베트 자치구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로 불교의 성지순례지 중 하나다.

특히 그들은 해발 3750m에 위치한 포탈라 궁전을 찾았다. 포탈라 궁전은 송첸캄포왕이 문성공주를 위해 7세기에 지은 건축물로, 바로 라싸의 상징이자 달라이라마가 거주했던 궁전이다. 1994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연걸의 두 딸인 제인과 자다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불교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세인트헤드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이연걸은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그의 자서전 'Beyond Life and Death: Jet Li Looking for Jet Li'를 홍보하면서 "딸 자다가 7살 때부터 우울증과 싸웠다"며 "자다와 함께 3개월간 티베트 불교 공부를 했고, 이는 딸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연걸은 25년 동안 불교를 수행할 만큼 불교에 깊이 빠져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최근 전 세계 불교 사찰들을 돌면서 산에서 명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연걸의 건강한 모습에 팬들은 "건강한 모습 보게 돼 기쁘다" "환영한다. 나의 영웅"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연걸은 지난해 11월 영화 촬영장에서 쓰러진 뒤 사망설이 제기됐다. 이연걸은 지난 2013년 갑상샘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박정현 기자

'미항' 홍콩 숨겨진 보석 '츠샨스 불교미술 박물관'

2019년 개관, 세계 명품 불교미술
"영적 발전 기회되는 전시 제공"


츠샨스 불교미술 박물관에 전시중인 6세기경의 석조 반가사유상. 사진출처=필스타 글로벌

번잡한 홍콩 시가지에 벗어난 산자락에 위치한 츠샨스(慈山寺), 최근 츠샨스에 위치한 불교미술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이 조용한 열풍을 몰고 있다. 8월 11일, 동남아 뉴스 전문 매체인 '필스타 글로벌'은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불교미술 박물관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2015년 홍콩 최대자선 단체인 리카싱 재단이 츠샨스를 개원하면서, 불교미술 박물관의 계획도 같이 시작됐다. 리카싱 재단의 이사장이자 홍콩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은 오랫동안 수집해온 불교미술품을 대중들이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박물관 개관을 꿈꿔왔고, 사찰의 개원과 함께 경내에 박물관 건립의 꿈을 이어나갔다.

리카싱 회장은 불교미술이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츠샨스의 관음대불 지하에 개관한 '츠샨스 불교미술 박물관'은 홍콩 최초이자 유일한 불교미술 전문 박물관이며 아시아 전역의 귀중한 불교 유물이 전시, 수장돼 있다. 박물관 개관 후 홍콩 관광청은 츠샨스와 박물관을 경제와 관광허브의 중심인 홍콩의 열광적인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방문객이 꼭 방문해야 할 도시의 '숨겨진 보석' 두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시 중인 기획전 '다채로운 도상학: 아시아 불교 미술의 희귀 컬렉션'은 중국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중국의 종교적 계보와 관련된 불교미술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박물관 측은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창시한 이래로 지배계층의 후원을 받았고, 승려들과 여행하는 상인들이 전파했다. 불교는 아시아 전역의 종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아시아 종교문화를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독특한 특성을 지닌 불교예술을 탄생시켰다"며 "이번 전시는 이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 불교를 전파하는 중심점이 되었던 중국의 불교미술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호법신들(천왕, 신장)', '신성함의 현현(아라한 또는 조사)', '자비와 서원(보살)', '장엄한 광명(여래)'의 4장으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은 각 장마다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국 불교미술 고유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박물관 측은 "불교미술 전문이라는 독특한 주제전시와 문화활동을 통해 우리는 불교와 문화를 엮어내고, 방문객에게 예술작품의 감상과 동시에 영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대중의 방문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부통령 후보와 달라이라마, 인연은?

월즈, 2016년 달라이라마 만난 후 "인생 바뀌었다"


사진출처=블룸버그통신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부지사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의 인연이 뒤늦게 세간의 관심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월즈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과 인연을 맺어오면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도 만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이후 2017년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발의에 참여해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했고, 중국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힌다. 그는 중국에서 돌아온 직후인 1990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에게 적절한 리더십만 있다면 그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며 "중국인들은 친절하고, 관대하고, 유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그가 달라이라마와 만났던 이력을 소개하며 "중국의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그는 2016년 티베트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의 탄압을 받고 해외에 망명한 달라이라마와 만난 뒤 자신의 SNS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글을 올렸다.

박정현 기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사용전 사용후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